

김혜수 × 주지훈 불꽃 튀는 연기 대결

하이ENA 금토드라마 불패신화 잇는다!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ENA>가 2월 21일(금) 첫 방송된다.

<하이ENA>는 머릿속엔 법을, 가슴속엔 돈을 품은 ‘똥물겨문’ 변호사들의 물고 뜯고 찢는 하이ENA식 생존기를 그린다. <시그널>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김혜수와 영화 <신과 함께>, <공작>, <킹덤> 등으로 명 배우 반열에 오른 주지훈의 만남만으로도 2020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별에서 온 그대>, <뿌리깊은 나무>의 스타 PD 장태유 감독과 2013년 SBS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루 리 작가의 신선한 조합이 <하이ENA>를 향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혜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법과 불법, 정의와 불의, 도덕과 부정, 그 경계를 넘나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이ENA 변호사 정금자 역할을 맡았다. 승리 앞에서는 사악해지기도, 능청스러워지기도 하며 카리스마와 코믹함을 오가는 정금자의 복합적인 매력이 김혜수를 통해 완벽하게 구현된다.

주지훈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살아온 변호사계의 금수저 윤희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스크린에 이어 브라운관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

잡초같이 살아온 정금자와 화초같이 살아온 윤희재, 180도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남녀의 파워게임이 불꽃 튀게 그려지며 나쁘고도 매력적인 두 하이ENA 변호사들의 쇼가 펼쳐진다.

윤희재가 소속된 거대 로펌 송&김은 대한민국 상위층을 움직이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엘리트 집단이다. 대표 송필중(이경영 분)은 송&김을 일류 로펌으로 이끈 주인공이며, 송&김의 다섯 명 밖에 안 되는 운영 위원 중 한 명인 마석구(송영규 분)는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변호사들을 경계하고 위로 올라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다. 송&김 내 윤희재의 유일한 친구 가기혁(전석호 분)은 아부가 특기로,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뛰어난 정치력을 갖고 있다. 또한 모든 법전과 판례를 외우는 일명 ‘차트박사’ 김창욱(현봉식 분), 완벽한 스펙으로 송&김에 합류한 어소 변호사 부현아(박세진 분), 사명감과 의욕이 넘치는 1년 차 변호사 나이준(정지환 분)까지 개성만점 변호사 군단이 송&김에서 활약하며 캐릭터 플레이의 재미를 선사한다.

제작진은 “송&김은 그 이름만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상위 포식자 집단이다. 그 때문에 송&김에 찾아오는 의뢰인들(김영아, 지현준, 이주연, 조동인 등) 역시 특별하다. 다양한 인물 군상이 모이는 송&김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 예측불허 사건들이 전할 재미를 기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이기찬, 황보라 등 개성 있는 배우들까지 더해져 다양한 경력, 성격, 매력의 연기자 조합이 탄탄한 완성도를 기대하게 만든다.

정글보다 치열한 사회에서 생존게임을 펼치는 하이ENA 변호사들의 이야기 <하이ENA>는 <스토브리그> 후속으로 2월 21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서바이벌 쇼 **정글의 법칙** 400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500 고지 향해서 나아간다!

<정글의 법칙>이 2월 29일(토) 400회를 맞는다. 예능에서 400회는 대단한 기록으로, 현재 SBS에서 방송 중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런닝맨>에 이어 두 번째로 400 고지를 넘어선다.

2011년 나미비아 편으로 시작한 <정글의 법칙>은 한국형 서바이벌 쇼의 효시로 평가된다. 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했고 한국에서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상금을 걸고 경쟁을 펼치는 콘셉트가 주는 정서적 이질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글의 법칙>은 병만족이라는 부족공동체가 협력과 희생을 통해 생존해 나가는 콘셉트로 '가족'과 '정'을 중시하는 한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그 덕분에 10년째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유지하며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

400회까지 46기의 병만족이 구성되었고, 그들이 거쳐 간 나라는 남극까지 포함해 38개국에 이른다. 왕복거리로 따지면 무려 714,240km, 지구 18바퀴를 돈 셈이다.

상복도 따랐다. 제46회, 52회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에

서 금상과 플래티늄상을 수상했고, 2012년 대한민국콘텐츠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이지원 PD)을 받기도 했다. 수훈자인 부족장 김병만은 제4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예능상, 2013년과 2015년 SBS연예대상에서 두 차례나 대상을 거머쥐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상은 헤아릴 수 없다.

400회까지 오는 동안 최다 출연자는 노우진(14회), 류담(13회), 강남(13회), 박정철(11회), 오종혁(7회), 이태곤(6회), 리키 김(6회), 전해빈(5회), 황광희(5회), 추성훈(4회) 순이다.

최다 연출자는 특집 2회 포함해서 14시즌을 연출한 김진호 PD이다. 김진호 PD는 2011년 1회부터 조연출로 참여하여 2014년 12기 보르네오 편부터 연출을 맡은 <정글의 법칙>의 산증인이다.

김진호 PD는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한 신동화, 이지원 선배님이 아프리카 한번 다녀오자고 해서 갔던 게 여기까지 왔다. 김병만 씨를 비롯해서 힘든 도전에 나서준 연예인들과 마인드와 능력 모두 대한민국 최고인 정글 스태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400회를 맞은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500회 고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고 싶은 특집은 무궁무진하다. 베어 그릴스와 함께 생존해보고 싶고, 북한 개마고원 생존, 남극점에 이은 북극점 원정, 러시아에서 영화 ‘설국열차’ 생존,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매드맥스’ 생존도 해보고 싶다”고 각오와 바람을 밝혔다.

한편, 김진호 PD가 준비하는 400회 특집 ‘헝거 게임 2’는 생존과 게임을 접목한 것으로 김병만, 노우진, 윤도현, 선, 오종혁, 박태환, 이승윤, 한보름, 하니 등이 출연한다. 2월 29일(토)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최고 시청률 순위(2049 시청률 기준)

1위	정글의 법칙 in 뉴질랜드	9.18%
2위	정글의 법칙 in 아마존	8.93%
3위	정글의 법칙 in 캐리비언(벨리즈)	8.90%
4위	정글의 법칙 in 갈라파고스	8.88%
5위	정글의 법칙 in 히말라야	8.58%
6위	정글의 법칙 더 헝거 게임	8.52%
7위	정글의 법칙 in 코스타리카	7.92%

기억에 남는 사건

정순영 국장님 실종 사건

2011년 파푸아 촬영을 마치고 정글에서 빠져나오던 정순영 국장님이 길을 잘못 들어 실종됐다. 한국에서는 본부장님, CP님이 즉시 출국을 준비했고 현지에서는 높은 현상금을 내걸고 밤샘 수색에 나섰다. 천만다행으로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약 24시간 만에 국장님을 찾을 수 있었다. 국장님은 온몸이 벌레에 물리고 약 7kg이 빠진 상태였다. 몇 달 지나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눈 땀을 때랑 눈 감았을 때랑 똑같은 거 경험해 봤니?”

김진호 PD



바누아투 배 전복 사건

첫 태평양 촬영이었다. 당시는 제작진도 경험이 적어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었다. 무인도로 들어가는 날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 현지인들이 출항을 만류했다. 하지만 출연자들의 스케줄로 인해서 일정대로 촬영을 강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한 지 5분도 채 안 돼 배가 전복됐다.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ENG 카메라가 침수됐다.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다. 그때부터 되뇌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전쟁 나갈 때 한 번, 바다 나갈 때 두 번,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하라!”



태국 판 <더 팬>, 지상파 채널 Workpoint에서 2월 첫 방송



태국 판 <더 팬>(포맷 명: <Fan Wars>)이 2월 16일(일) 태국의 지상파 채널인 Workpoint에서 첫 방송된다. Workpoint는 태국 판 <복면가왕>을 방송해 호평받은 방송

사로, 앞으로 <Fan Wars>가 매주 일요일 저녁 프라임타임을 책임진다. 글로벌 포맷 회사인 Banijay Group과 해당 포맷을 공동 개발한 예능2CP 소속 김영욱 PD와 글로벌콘텐츠Biz팀 허승하 프로듀서는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첫 녹화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돌아왔다. <Fan Wars>는 Workpoint가 올해 가장 주력으로 내세우는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캐스팅도 화려하다. 유명 배우 겸 MC인 Kan Kantathavorn이 진행을 맡았으며,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Rhatha Phongam, 태국 판 <복면가왕>에 출연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 수 3억 뷰를 기록한 가수

Ohm Cocktail 등 총 15명의 '빅 팬'이 출연해 각각 1명씩 루키를 추천한다. Workpoint는 페이스북 팔로어 1,3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2,7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서 막강한 입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루키와 팬 사이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orkpoint는 이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각종 티저 영상과 사진을 선보이며 홍보하고 있다.

<판타스틱 듀오>에 이어 두 번째 포맷 수출을 경험한 김영욱 PD는 "제작 전에 컨설팅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세트를 똑같이 지어놓고 녹화하는 것을 지켜본 것은 처음이라 감동을 받았다. 태국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 무대 동선이 자유롭기 때문에 태국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오디션 쇼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하 프로듀서는 "<Fan Wars>가 태국 판을 시작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주, 유럽 지역 국가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클립서비스 유튜브 진출... 방송 콘텐츠의 플랫폼 확장

- 콘텐츠프로모션팀 황정우

국내 최대 동영상 광고 플랫폼인 스마트미디어렐(SMR)이 12월 21일부터 국내 방송사 클립 VOD(주문형비디오)를 기존 네이버, 카카오, 곰TV, 줌(ZUM) 등 국내 플랫폼 외에 유튜브에도 제공한다. 이번 유튜브 공급에는 SMR에 클립 VOD의 유통·광고 권한을 위임한 지상파 3사와 CJ ENM,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의 방송사가 모두 참여한다. 콘텐츠프로모션팀에서 SMR 서비스를 담당하는 황정우 사원을 만나 봤다.

방송사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철수한 지 5년 만에 다시 진출했다. 배경은?

클립 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의 점유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 서비스를 배제할 수 없다는 회사의 판단이 있었다. 국내 포털사와의 협의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방송 클립 서비스를 일정 기간 포털에 선공개하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 배포하고 있다.

SMR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방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유통된다. 지상파 채널로 송출되는 실시간 방송과 홈페이지, IPTV, OTT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되는 풀 VOD 서비스, 그리고 3분 내외의 하이라이트를 서비스하는 클립 영상이다.

클립 서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제 방송된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이용자의 댓글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포자 입장에서는 클립별로 이용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콘텐츠프로모션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이 있나?

SBS 대표 채널인 SBS NOW를 비롯해서 프로그램 장르별 허브 채널인 SBS Drama(드라마), SBS Entertainment(예능), SBS Story(교양)까지 총 4개 채널을 운영한다. 장르별 3개 채널은 2011년부터 운영되었지만 해외 이용자 대상이 었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SBS NOW 317만 명, SBS드라마 324만 명, SBS엔터테인먼트 330만 명, SBS스토리 7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공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를 기점으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SBS NOW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각 장르별 3개 허브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클립 영상과 기획 영상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에 단순히 영상 클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 메이킹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콘텐츠 베이스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계획이다.

제작 파트에서도 각기 버티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돌은 없나?

예능에서는 SBS ENTER PLAY와 런닝맨, KPOP PLAY 채널, 교양에서는 애니멀봐, 우와한비디오, 그알 채널을, 드라마에서는 스프스캐치 채널을 운영하며 제작본부만 가능한 오리지널 클립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다.

SBS NOW와 장르별 3개 허브 채널은 본부별 버티컬 채널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SBS가 최고봉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



다. 클립의 엔딩 화면에 SBS의 다른 채널로 연계할 수 있는 링크를 걸고 채널 간에 교차 게시를 하는 등 SBS 패밀리 채널을 네트워크화하고 있고, 향후에는 기획 콘텐츠 공동 제작도 계획 중이다.



SBS 유튜브 채널을 응원하는 방법

하나. SBS 패밀리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누른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완벽!)

둘. SBS 채널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다.
(좋은 영상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으니까!)

셋. 영상에 나오는 광고는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한다.(스킵하면 SBS 수익으로 안 잡혀요!)



'K랭귀지' 확산에 앞장선다



세계 미인대회 입상자들의 좌충우돌 한국어 습득기 2월 25일 첫 방송

세계 미인대회 입상자들이 생존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은 SBS플러스 <맨땅에 한국말>이 지난 5일(수) 상암 SBS프리즘타워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진행을 맡은 이희재, 정세운을 비롯해 나탈리아, 페이스, 뷔락, 다이아나, 장휘성(한국어 선생님)이 참석한 가운데 6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 시대 가장 완벽한 언어로 손꼽히는 한글을 배우기 위해 나탈리아 카바잘(2018 미스 유니버스 코스타리카-한글 이름: 나달히), 페이스 랜드만(2017 미스 어스 네덜란드-한글 이름: 이유정), 뷔락 코락나이(2017 미스 월드 헝가리-한글 이름: 유라), 다이아나 햄드(2019 미스 유니버스 이집트-한글 이름: 미소)가 나섰다. 이들은 인사말부터 열심히 준비한 유창한 한국어를 선보여 환호를 자아냈다. 또 미인대회 출신다운 멋진 포즈로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김태형 SBS플러스 편성제작 국장은 "K팝, K푸드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데 이를 다음 트렌드는 K랭귀지가 아

닐까 싶다. 방송의 포커스를 K랭귀지에 뒀다. K랭귀지를 전파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미인대회 입상자들이 다 보니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의 대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언어의 대사'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맨땅에 한국말>은 2월 25일(화)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다. '학생 4인방'이 그토록 궁금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숨은 매력과 그곳에서 생존을 위한 한글을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LG 은퇴' 이동현,

해설위원으로 야구장 컴백

은퇴를 선언한 이동현이 해설위원으로 팬들에게 돌아온다.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LG트윈스 프랜차이즈 스타 이동현이 SBS스포츠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동현은 해설위원으로서 동계 해외 전지훈련을 취재하고, 2020 KBO리그부터 중계석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SBS스포츠에는 이순철, 안경현, 이종열 등 노련한 방송인으로 거듭난 선수 출신 레전드 해설진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갓 은퇴한 이동현이 합류함으로써 친구 화해를 이루게 됐다. 이동현은 차분한 말투와 방송에 적합한 어법을 갖췄으며, 다양한 플랫폼의 시청자에게 두루 소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동현 해설위원은 "선수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해설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동현은 2001년 LG에 입단한 이후 약 19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은 '원클럽맨'으로, 통산 700경기 등판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고 은퇴했다.



구내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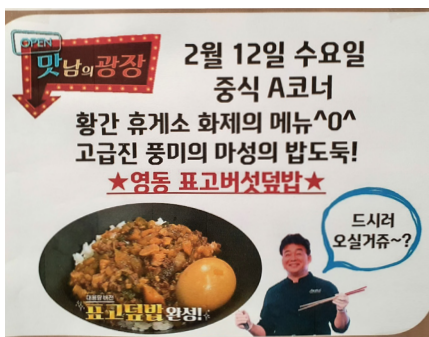
메뉴로 인기 폭발

목동 SBS 본사 구내식당에서 <맛남의 광장> 레시피를 이용한 메뉴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내식당에서는 1월 21일 멘보 사과를 시작으로, 2월 3일 멸치가락국수, 7일 중화제육면, 12일 표고버섯덮밥을 중식 메뉴로 내놓았다. 이 메뉴들은 <맛남의 광장> 덕유산휴게소, 여수공항, 영천휴게소, 황간휴게소 편에서 각각 소개돼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 메뉴들이 나온 날 구내식당 해당 코너는 줄이 길게 늘어서 12시 10분경에 준비한 물량이 동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직원들은 "TV에서 보고 먹고 보고 싶었는데 구내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니 반갑다", "SBS 프로그램과 구내식당의 연계 아이디어가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워홈 SBS 목동점 김민주 점장은 "식단을 짤 때 TV에 나온 메뉴를 참고하기도 한다. 소떡소떡 같은 메뉴는 타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메뉴라 아쉬웠는데 <맛남의 광장>은 SBS 프로그램이고 참고할 만한 참신한 메뉴와 레시피가 많다. 기대 이상으로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계속 시도할 생각이다. <맛남의 광장> 제작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다 같이 동참합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SBS도 발 벗고 나섰다.

<인기가요>, <두시탈출 컬투쇼>,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한샘타이거즈> 등 라디오, 교양, 예능의 모든 프로그램이 2월부터 방청객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맛남의 광장>은 휴게소를 포기하고 2월 14일~15일 폐교에서 사전에 섭외된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한다. 2월 9일에 예정됐던 <런닝맨> 마닐라 팬미팅 겸 콘서트도 연기했다.

SBS 사옥의 모든 출입구에서 손 소독을 강제하고 체온감지기로 발열 체크를 하는 한편, 보도, 제작과 경비 등 대면 작업이 잦은 인력을 중심으로 마스크 16,000개를 배포하고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인과의 미팅은 1층 로비에서 하고, 사옥 근무자 외에는 구내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감염병 발생 국가로의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개인 해외여행도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귀국 후 14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관리실에서 발열 체크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양상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무기한으로 계속된다.

변영욱 간호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비누로 손을 닦거나 세정제로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당국의 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과 건강관리실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BS 내 비상계획을 총괄하는 총무팀 박성용 부장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전사적으로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사우 여러분에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예방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서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